



분부 및 서울지부 규탄대회 광경

## 北傀만행 규탄대회 열려

### 끓어오르는 분노, 참지못해

한국기생총박멸협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본부 및 서울시지부 직원 전원은 버마 암살폭발사건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10월 10일 오후 2시 분부 강당에서 북괴만행 규탄대회를 열고 결의문 채택, 구호제창으로 북괴를 규탄하고, 순국 사절의 회생에 보답할 것을 맹세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머리에 흰 띠를 둘러 우리의 결의를 한결 드높였으며 피켓을 높이 쳐들어 외치대며 북괴를 규탄했다.

한편 기협외의 13개 전국 각시도지부에서도 잇달아 규탄대회를 열고 북괴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분노를 표했다.

#### ■ 구 호

1. 살인마 북한 공산당을 처부수자.
1. 북괴의 잔인 무도한 테러 행위를 만천하에 규탄한다.
1. 피맺힌 비보를 거울삼아 국력배양에 전력하자.

#### ■ 결의문

서남아를 순방중이던 순도환대통령각하와 일행이 1983. 10. 9. 12시 55분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북괴의 테러로 인한 폭파 사건으로 서석준 부총리

# “全 인류의 이름으로 규탄되어 마땅”



金正禮 장관

## 金正禮보사부장관, 버마사태論評

金正禮보사  
부장관은 지  
난 10월 9일  
버마 폭발참  
사에 대한 논  
평을 발표, 「버

마 폭발 대참사 소식을 듣고 참으로 큰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은 순국대통령을 위해 하려고 한 북괴의 흉계에 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북괴의 만행을 통렬히 비난했다.

김장관은 「아무리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도 북괴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끔

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고 생각 하니 인간으로서 자제심의 한계를 느낀다」고 분개하고 「북괴의 비인간적이고 잔악한 이번 대량 학살극은 전인류의 이름으로 규탄되어야 하며 북괴는 어떤 형태로든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버마에서의 이번 폭발 사건으로 아까운 인재를 상실한 애통환을 달랠 길이 없으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 각료들과 공식·비공식 수행원들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하고 「중상을 입은 수행원들도 조속한 쾌유가 있기를 빈다.」고 위로했다.

및 정부 각료 등 17명이 살해되고 13명의 부상자를 내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북괴의 이 비열한 만행에 대하여 기협 전직원은 조국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 천인공노할 비열한 테러행위를 온 세계에 고발하고 잔악무도한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북괴의 천인공노할 이 폭력과 잔인무도한 테러 행위를 전인류와 민족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규탄한다.

1.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피수의 본색을 드러낸 북한 공산당을 쳐부수자.

1. 우리는 살인마 북한괴뢰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온세계에 고발한다.

1. 우리는 피맺힌 비보를 거울삼아 국력 배양에 전력을 다한다.

1983. 10. 10.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직원 일동

### 金正禮 장관, 환자방문코 위로

金正禮보건사회부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버마참사 사건"으로 부상해서 국립의료원 311호실에 입원중인 崔圭徹 동아일보 기자를 방문하고 위문했다(사진은 위문 광경)



### 孫次鳳 감사실장

#### 停年퇴임식



孫次鳳실장

본회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孫次鳳 씨가 지난 10월 10일 만 61세로 명예 정년 퇴임하였다.

손실장은 지난 1967년 기협에 들어온 이래 17년간을 오로지 기협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바 있다.

충북도 사무국장, 충남도 사무국장을 거쳐 정년퇴임시까지 본부 감사실장으로 재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바 있다. 정년퇴임식은 10일 오전 11시에 거행

되었는데 서병설 회장의 식사와 감사패 수여가 있었고 직원대표의 送辭낭독, 寄友會에서 드리는 기념품 증정과 기념패 증정이 있었다.

### 吸虫類감염증 국제심포지움

12개국 참가, 경주서 개최

동남아 및 극동아세아지역의 인체 吸虫類감염증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 관광 센터 국제 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의 1백여 학자들을 비롯하여 국내의 학자 2백여명 등 3백여명의 의약계인사가 참석한 이번 국제 심포지움은 고려대학교 부설 열대풍토병 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 바이엘약품이 후원했다.

## 순국외교사절 합동분향소 참배

기협임직원, 국립묘지 현충관에



◀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徐丙高 회장을 비롯한 기협본부 임직원과 서울지부 직원들은 지난 10월 11일 국립묘지 현충관에 안치되어 있는 순국외교사절 합동분향소를 참배하고 가신 님들의 명복을 빌었다.

버마 암살폭발사건으로 순직하신 17위

의 영령들앞에 머리숙여 분향하고 가신 님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맹서를 다시 한번 하기도 —.

徐 회장은 분향에 앞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뒤이어 安商玉 상무이사, 부실국장 등 순으로 분향했다.

### 寄協人事

한국 기생충박멸협회와 한국 건강관리 협회는 지난 10월 13일자로 林容直 강원도 사무국장을 본부 감사실장으로 전보하는등 부·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 이동을 단행했다. 인사이동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전직).

○본부 감사실장 林容直(강원도 지부 사무국장)

○강원도지부 사무국장 직무대리 成正雄(본부 총무과장)

○충남도지부 사무국장 金致洙(충남도지부 사무국장 직무대리)



임명장 수여광경

○본부 총무과장 鄭淨豹(본부 기획과장)

○본부 기획과장 李焯(서울지부 사업과장)

○서울지부 사업과장 張在晟(경남도지부 서무과장)

○경남도지부 서무과장 金定植(전북도지부 사업주임)

## 權蕤赫이사, 文敎部장관에 취임



권이혁 장관

權蕤赫 한국기생충박멸협회 理事 겸  
한국건강관리협회 理事인 權蕤赫 박사

정부 10월 14일, 내각 개편단행

가 지난 10월 14일 개편된 내각의 문교  
부장관으로 취임했다.

權장관은 최근 비마의 랑군참사로 인  
한 내각개편에 따라 시뮬한 것이다.

권이혁 장관은 23년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47년 서울의대, 56년 미네소타  
보건대학원을 나와 70년 서울의대 학장,  
79년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거쳐 서울대  
학교 총장에 재직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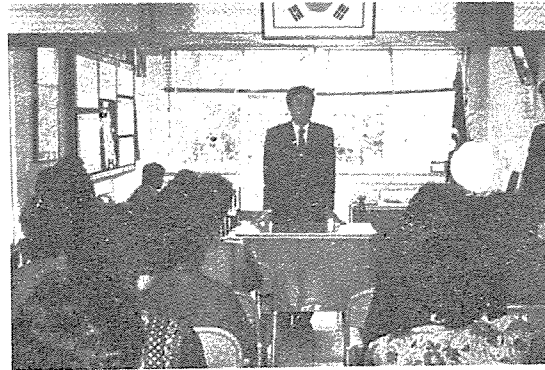
## “양호교사에 보건교육실시”

충남지부, 기생충·건강검진사업 등 설명

기협 충남지부(지부장 崔仁基)는 지  
난 9월 30일 회의실에서 대전시대 조·  
중·고등학교 양호교사에 대한 보건교육  
을 실시했다.

대전시 교육청 사회체육과장 朴鍾太  
의 45명의 양호교사가 참석한 이날 교  
육에서는 학생집단에 대한 효율적 기생  
충관리와 특수기생충(간·폐디스토마·조  
충)의 예방과 구제대책, 그리고 비전염  
성 만성질환 조기발견 사업에 대한 교육  
이 4시간 동안 열도있게 진행됐다.

이 교육에서 양장귀(삼 성국교) 양호  
교사 협의의장은 앞으로 기협 충남지부



가 이러한 보건교육을 자주 실시하여 검  
사기관과 양호교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가 이룩되도록 요망했다.